

원 저

한방산후조리가 산모의 혈색소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문세희, 김정연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교실

The Effect of the Oriental Postpartum Care in Hemoglobin Changes of Maternity

Se-Hee Moon, Jeong-Yun Kim

Department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Objectives: Anemia is the center of interest in every maternity, both during pregnancy and lactation. The oriental postpartum care has one principle: to invigorate Qi (氣) and blood (血) greatly. In this study, we seek to confirm that most sufferers of anemia recover under oriental postpartum care. To assure that this study had significance in non-iron supplement, we made a comparative study between oral iron supplement and non-iron supplement groups in oriental postpartum care.

Methods: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to discern the difference in hemoglobin change between admission and after 2 weeks under the circumstances of 30 oral iron supplemented and 38 non-iron supplemented women who were admitted to the hospital attached to Woosuk University Oriental Medical College from April to August 2001 for postpartum care.

Results: The mean hemoglobin level of after 2 weeks was 11.95 mg% ($p < 0.001$). The mean hemoglobin level after 2 weeks was 11.65 mg% and 12.18 mg% in the iron supplemented and non-iron supplemented women respective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s: Oriental postpartum care overcomes anemia significantly in postpartum maternity. This is confirmed significantly under the non-iron supplement. (*J Korean Oriental Med 2002;23(1):112-119*)

Key Words: The oriental postpartum care, Anemia, Hemoglobin changes.

서 론

모든 산모들에게 있어서 빈혈은 임신기간 동안과 분만 후, 수유기 동안에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이 때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혈은 철결핍성 빈혈로, 이는 체내의 철분 함량이 정상보다 적은 상태로 정의된다¹⁾. 철결핍성 빈혈의 치료제로써 경구용 철분제가 보편적으로 선택된 후 지금까지 이것의 복용으로 임신과 출산 직후의 산모의 혈액학적 변화가 관심의 대상이었다²⁾. 산모는 임신 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도 失血과 수유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빈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의 조치는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산후조

· 접수 : 2001년 10월 20일 · 채택 : 2002년 1월 26일
· 교신저자 : 김정연,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2가 5번지 우석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Tel. 063-220-8668, Fax. 063-227-6237, E-mail: sayhahaha@yahoo.co.kr)
· 본 연구는 2002년도 우석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리를 잘 하고자 하는 여성이 늘고 있고 산후조리원이 많이 생기고 있으나 전문인력으로 관리되는 곳은 극히 적어서 산후 빈혈의 관리는 여전히 개인적인 것이 현실이다.

歷代 醫家들은 산후관리에 대하여 論하기를, 産後에는 氣血이 虛하고 津液이 부족해지므로 이를 補하는 것을 최우선의 처치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으며^{3,5)} 따라서 본원 산후조리클리닉에서는 이에 주안점을 두고 한방처치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산모의 빈혈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한방산후조리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경구용 철분제를 복용한 산모와 복용하지 않는 산모간에 혈액소 변화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철결핍성 빈혈은 경구용 철분제의 복용으로 대부분 호전되기는 하나 그 부작용과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빈혈에 대한 조치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⁶⁾. 저자들은 한방산후조리가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산모의 빈혈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1년 4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우석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산후조리클리닉에서 2주동안 산후조리를 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출산한지 1주일 이내에 입원하여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 중, 입원당시 혈액소치가 12mg%(WHO가 제시한 성인 여자 정상치) 이하인 산모 68명에 한정하였다. 여기서 실험군을 경구용 철분제 복용군 30명과 비복용군 38명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단, 출산 후에 失血이 심하여 수혈처치를 받았거나, 본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단백질수액제제 처치를 받거나 영양제(비타민류 등)를 복용한 산모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1) 혈액소 검사

검사기기는 Blood Cell Counter(Hemacell, France,

1996)를 이용하여 입원시 혈액소와 산후조리 2주후(입원13일째) 혈액소의 수치를 비교하였다.

2) 실험군의 설정

경구용 철분제 복용군은 제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원기간 내내 철분제를 1일 1회 지속적으로 복용한 산모로 하였고, 그 이상 복용한 산모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복용군은 출산 후에 경구용 철분제를 복용하지 않은 군으로 하였다.

3) 한방산후조리의 처치

한약은 처음 5일간은 生化湯加減으로 투여하고 이후에는 補虛湯을 비롯하여 隨證 處方하였다. 生化湯加減은 《葉天士 女科》⁴⁾의 生化湯에 약제를 加味하고 증량하여 當歸 30g, 川芎 10g, 桃仁 8g, 乾薑(炒黑), 澤蘭 各 6g, 木通, 王不留行, 灸甘草, 生薑, 大棗 各 4g으로 煎湯하여 1일 3회 투여하였는데, 진단에 따라 當歸와 川芎의 量을 減하기도 하고 증상에 따라 기타 약제를 가미하였다. 補虛湯은 《方藥合編》⁷⁾의 原方대로 白朮, 人蔘 各 6g, 當歸, 陳皮, 川芎, 黃芪 各 4g, 生薑 3g, 甘草 2.8g으로 煎湯하여 1일 3회 투여하였는데 체질에 따라 인삼을 거하기도 하였다. 이후의 처방도 證에 따라 煎湯하여 1일 3회 투여하였다.

한방처치에 대하여는 가급적 동일화 하였다. 針은 三陰交, 天樞 등에 1일 1회 시술하였고, 灸는 蓬萊灸를 關元에 1일 1회 시행하였다. 물리치료는 간섭전류치료(ICT), 하지 진동기, Rolling bed, 특정 전자기파치료(TDP) 등을 1일 1회 시행하였고, 20여분 정도의 음이온침질을 1일 1회 시행하였다.

4) 고려된 조건

분만형태는 실험량을 고려하여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분만으로 구분하였다.

식욕은 식사량에 따라 양호, 중등도, 저하로 분류하였는데, 하루 한끼이상을 거르면 저하로, 매 식사를 2/3이상 먹으면 양호로, 저하와 양호사이를 중등도로 분류하였다.

5)통계처리

자료는 SPSS 8.0 Windows에 입력하여 전후비교는 Independent T-Test를, 분만방식에 따른 복용군과 비복용군의 비교는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고, P<0.05로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1.산모의 나이

연구대상자의 나이 분포는 22세에서 38세 사이였으며 평균연령은 30.1세 였는데, 경구용 철분제 복용군에서 30.1±4.4세, 비복용군에서 30.0±3.36세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Table 1. Mean of Age

	Iron(n=30)	Non-Iron(n=38)	Total
Mean of Age	30.1±4.4	30.0±3.3	30.1

2.혈색소의 변화

1) 산후조리클리닉 입원시와 2주후의 혈색소의 평균은 각각 10.40±0.94mg% 와 11.95±1.10mg%로 1.54±0.90mg%가 상승하여 유의있는 호전을 보였다(Table 2, Fig.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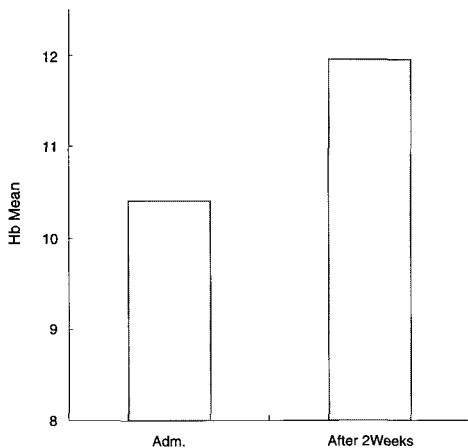


Fig. 1. Comparison of the mean hemoglobin levels adm. and after 2 weeks.

2) 경구용 철분제복용군과 비복용군의 혈색소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입원시 복용군은 10.24±0.89gm%, 비복용군은 10.53±0.97gm%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2주후는 복용군은 11.65±1.08gm% , 비복용군은 12.18±1.07gm%로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유의있는 호전을 보였다(Table 2, Fig.2).

Table 2. Comparison of the Mean Hemoglobin Levels Adm. and After 2Weeks in Iron and Non-Iron Groups

Hb	Iron(n=30)	Non-Iron(n=38)	Total(n=68)
Admission	10.24±0.89	10.53±0.97	10.40±0.94
After 2weeks	11.65±1.08	12.18±1.07	11.95±1.10
Improvement	1.41±0.89 *	1.65±0.90*	1.54±0.90 *

The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mg%)
* P<0.001(By Independent T-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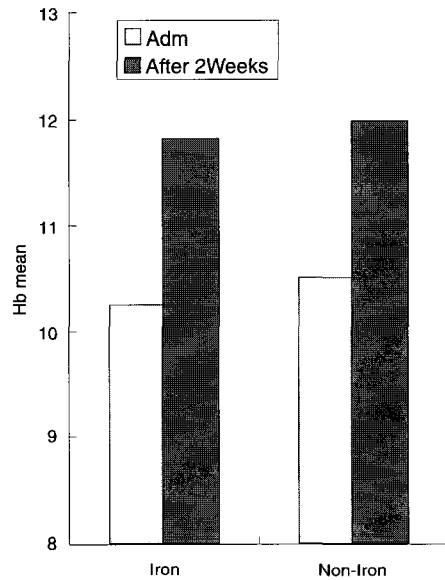


Fig. 2. Comparison of the mean hemoglobin levels adm. and after 2 weeks between iron and non-iron groups.

3) 식욕에 따른 혈색소의 변화는 양호군에서 1.62±0.82mg% 증가하였고, 중등도군에서 1.39±0.84 mg%, 저하군에서 1.64±1.14mg%가 증가하였으나 세 군간의 차이가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Table 3).

4) 분만형태를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로 나누어 경구용 철분제복용군과 비복용군의 혈색소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연분만군에서는 입원 2주후 복용

군의 혈색소는 11.81 ± 1.19 mg%, 비복용군은 11.98 ± 1.09 mg%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제왕절개군에서는 복용군이 11.49 ± 0.96 mg%, 비복용군이 12.84 ± 0.67 mg% 로 호전도는 비복용군에서 높았다(Table 4, Fig.3, 4).

Table 3. Comparison of the Mean Hemoglobin Levels Adm. and After 2Weeks According to Appetite

Appetite	Adm.	After 2Weeks	Difference
Poor(n=15)	9.95 ± 0.86	11.59 ± 1.31	1.64 ± 1.14
medium(n=24)	10.50 ± 0.81	11.90 ± 1.10	1.39 ± 0.84
Good(n=29)	10.55 ± 1.04	12.17 ± 0.94	1.62 ± 0.82

The values are mean \pm standard deviation(mg%)
Statistics significant was evaluated by Kruskal-Wallis Test.

고 찰

임신을 하게 되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에 각별한 주의를 하게되는데, 특히 빈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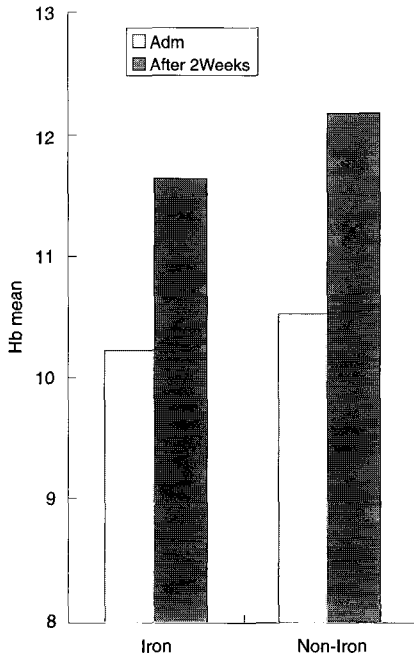


Fig. 3. Comparison of the mean hemoglobin levels adm. and after 2 weeks in vaginal duct deliv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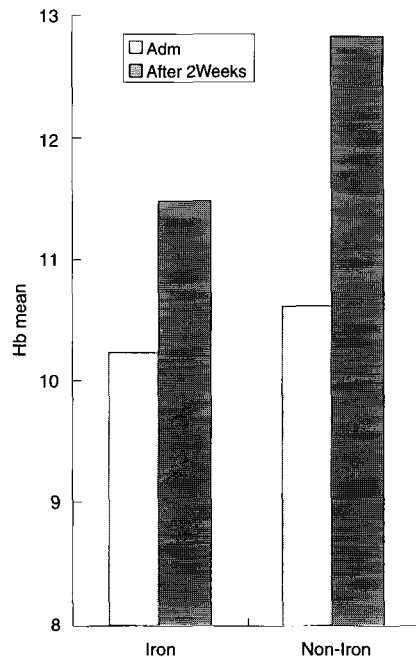


Fig. 4. Comparison of the mean hemoglobin levels adm. and after 2 weeks in caesarean section.

Table 4. Comparison Between Iron and Non-Iron Groups According to Delivery Form

	Vaginal Duct Delivery(n=44)			Caesarean Section (n=24)		
	Iron(n=15)	Non-Iron(n=29)	P-value	Iron(n=15)	Non-Iron(n=9)	P-value
Admission Hb	10.24 ± 0.94	10.50 ± 0.94	N.S*	10.23 ± 0.87	10.63 ± 1.13	N.S*
After 2weeks Hb	11.81 ± 1.19	11.98 ± 1.09	N.S*	11.49 ± 0.96	12.84 ± 0.67	0.002 †

The values are mean \pm standard deviation(mg%)

*N.S : Non Significance

† P<0.05(By Mann-Whitney Test)

은 임신과 연관된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²⁾. 이 기간동안에는 철의 요구량이 정상 성인 1일 1-2mg의 양보다 3-4배나 증가하기 때문이다³⁾. 빈혈이란 말초 혈액 내 철색소, 적혈구의 전체 용적 혹은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력등이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이때 철분결핍은 체내의 철분함량이 정상보다 적은 상태로 정의된다⁴⁾. 정상 성인의 철색소치는 보고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⁵⁾는 한국인의 철색소 정상치에 대해 남자는 12-16gm%(평균 14gm%), 여자에서는 11-15gm%(평균 12.5gm%)를 제창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68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정상치 기준인 성인남자 13mg%, 성인여자 12mg%, 임신부 11mg%를 바탕으로 하였다⁶⁾. 임신성 빈혈의 대부분은 철결핍성 빈혈로 Kiwanuka 등은 빈혈은 임신여성의 84.4%에서 발생하고, 철결핍성 빈혈의 유병률은 임신시 빈혈여성의 54.7%라고 보고하였는데⁷⁾ 우리나라의 유병률은 55-60%로 보다 높게 보고되는 실정이다⁸⁾.

경구용 철분제제의 보편화로 철결핍성 빈혈은 쉽게 정복되는 질환이 되었으나 김⁹⁾ 등의 보고에 의하면, 임신부가 철분제의 복용을 중간에 끊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부작용 때문' (32.9%)으로 나타나 오심, 구토 등의 소화장애나 변비, 설사 등의 부작용은¹⁰⁾ 산모가 철결핍성 빈혈을 극복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물론 음식을 통해서도 철분의 섭취는 가능하나 보통 성인이 1일 섭취하는 철은 0.6-1.5mg 인데 산후에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2-5mg의 철분이 필요하게 된다¹¹⁾. 비록 임신 중에는 위장관으로부터의 철흡수가 비교적 증가되지만 음식물로부터 흡수되는 철분의 양과 체내저장으로부터 유리되는 철분량을 합쳐도 임신에 의해 요구되는 철분량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임신후반기에는 철분의 추가공급이 필요하고 모유수유를 할 경우에는 분만 후 수주까지도 필요하게 된다¹²⁾. 또, 김 등³⁾의 보고에 따르면 임신기간동안 철분제의 복용이 분만직후의 혈액학적 유지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으로 보아 임신 뿐 아니라 출산 후 수유기에도 빈혈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葉天士 女科》¹³⁾의 「保產 下篇」에서는 산후조리의 원칙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產後, 氣血大虛, 理宜峻補, 但惡露未盡, 峻補, 須防壅滯, 血能化, 又能生攻塊, 無損原氣, 行中帶補... 惟生化湯, 用之最當...」 이라 하여 산후에는 氣血이 극도로 虛하므로 大補氣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祛瘀生新하는데 生化湯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고, 《傳青主 女科》¹⁴⁾ 「產後編 卷上」의 產後總論에서는 「產後, 必大補氣血爲先, 須有他症, 以未治之」라 하여 역시 大補氣血함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 《景岳全書》의 「產後類」에서는 「論產後當大補氣血」이라는 제목으로 산후에는 모든 병이 대부분 血虛에서 오므로 發表를 하지 말고 大補함을 우선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醫部全錄》¹⁵⁾의 「婦人產後門一」에서도 산후에는 血虛가 많고 津液이 손실되므로 산후병이 생긴다는 것을 들고 있다. 백 등¹⁶⁾은 부인과 질환의 일반적 원인에 관한 문헌적 고찰에서 산후병의 주원인은 氣血虛와 血瘀가 주된 病因이라고 밝혀 놓았듯이, 古來로 한의학문헌에서는 산후에는 氣血을 補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특히 血虛와 血瘀에 대하여 조처할 것을 중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방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祛瘀生新하고 大補氣血 할 목적으로 다양한 한방처치를 시행하였는데 빈혈을 치료하였던 주 재료로 生化湯과 補虛湯을 들 수 있다. 生化湯은 傅¹⁷⁾이 創製한 처방으로 「產前傷寒, 墮胎와 臨產의 胞衣不下, 產後의 寒熱往來, 血塊作痛, 血虛眩暈, 四肢厥冷」 등에 이용한다고 하였다. 본 방제는 活血化瘀하고 溫通止痛하는 효과가 있어 역대 醫家들이 產後癰疽나 血虛發熱하면서 腹痛을 겸한 환자 또는 血虛로 인한 산후 眩暈 및 大便難 등에 이용하여 왔다. 본원에서는 祛瘀血하여 자궁을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고 乳汁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生化湯의 약물구성은 補血和血하고 調經止痛시키며 潤燥滑腸하는 當歸와 行氣開鬱하면서 祛風燥濕 및 活血止痛하는 川芎, 破血行瘀하면서 潤燥滑腸하는 桃仁, 溫脾胃하는 乾薑, 和中緩急하면서 潤肺解毒 및 調和諸藥하는 灸甘草로 이루어져 있다¹⁸⁾.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通乳 및 利尿작용이 있는 木通과 王不留行을 加味하여 사용하였다. 補虛湯

은 李¹⁸⁾에 의해서 《醫學入門》¹⁸⁾에 수록된 처방이나 원래는 《丹溪心法》¹⁹⁾에 기원하고 있는 처방으로, 朱¹⁹⁾는 “產後無得冷虛, 當大補氣血爲先, 雖有症, 以未治之”라 하였다. 李¹⁸⁾는 朱¹⁹⁾의 처방에서 茯苓을 除하고 黃芪를 加하여 補虛湯이라 명명하였는데, 그 약물구성을 보면 大補元氣하면서 生津止渴하고 營衛를 조화롭게 하여 內傷虛勞, 勞傷虛損, 發熱自汗, 胎產諸虛 등을 치료하는 人蔘, 補脾益胃하면서 補氣補血하는 白朮, 補血養血潤燥하여 일체의 血虛에 사용하는 當歸, 補血行血하면서 活血止痛하는 川芎, 補脾益氣하면서 固表止汗하는 黃芪, 調中利氣하는 陳皮, 和中緩急하면서 潤肺解毒 및 調和諸藥하는 甘草, 그리고 溫中祛寒하면서 解藥毒하는 生薑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補氣益氣작용을 하고 養血하여 補血하는 처방임을 알 수 있다¹⁵⁾. 車 등²⁰⁾은 補虛湯과 加味補虛湯을 이용하여 자궁근에 대한 운동을 실험적으로 고찰한 결과 乾薑과 荊芥를 가미한 방제는 赤血球數 및 Hemoglobin 농도 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金 등²¹⁾은 生化湯 및 加味生化湯이 Endotoxin으로 유발된 白鼠의 혈전증에 미치는 영향에서 혈소판수, Fibrinogen량, FDP(Fibrin-fibrinogen Degradation Products)농도, Prothrombin time, Fibrinolytic activity 및 Whole Blood Aggregation 등을 측정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고 生化湯 및 加味生化湯의 祛瘀血하는 효과를 입증하였다. 또, 金 등²²⁾은 加味生化湯을 복용한 제왕절개시술 산모의 임상적 연구에서 加味生化湯의 복용은 津液손실의 증거인 변비, 소변 및 口渴의 증가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출산후 Hemoglobin 량의 감소를 억제시켜 生血작용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崔²³⁾는 한방산후조리가 혈액 및 체성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산후조리전후의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치는 1.05±1.18mg%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산후조리전후 증가한 1.54±0.90mg%보다는 낮은 호전도이나 유의성 있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후조리클리닉 입원시 산모의 혈색소의 평균은 10.40±0.94mg%였고, 조리 2주후에는 11.95±1.10mg%로 상승하여 산모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정상성인 여자의 혈색소 정상치인

12mg%에 가까운 정도로 호전되었다. 이 결과가 철분제 복용으로 인해 혈색소가 호전된 것임을 배제하기 위하여, 경구용 철분제 복용군 30명과 비복용군 38명으로 나누어 혈색소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군간의 입원시 혈색소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조리 2주후의 혈색소는 복용군이 11.65±1.08mg%, 비복용군이 12.18±1.07mg%로 혈색소 변화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이로써 한방산후조리만으로 산모의 빈혈이 호전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빈혈의 호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식욕을 고려해 보았는데, 식사량에 따라 매끼를 2/3이상 먹으면 식욕 양호로, 하루 한끼이상을 거르면 식욕 저하로, 양호와 저하사이를 중등도로 구분하여 혈색소 변화를 본 결과 조리 2주후의 평균 혈색소치가 식욕저하군은 11.59±1.31mg%, 중등도군은 11.90±1.10mg%, 양호군은 12.17±0.94mg%로 각각의 상승치는 1.64±1.14 mg%, 1.39±0.84mg%, 1.62±0.82mg%로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이로써 식욕 내지는 식사량이 혈색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別無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분만방법을 구분해 보았는데, 자연분만에 비해 제왕절개 분만 시 실혈량이 더 많으므로 입원시 혈색소가 낮고 또 이것이 혈색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은 했으나, 입원시 혈색소치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가 각각 10.38±0.97mg%, 10.41±0.94mg%로 근사하였으며, 퇴원시 혈색소치는 각각 11.92±1.12mg%, 12.00±1.08mg%로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이로써 분만방식이 혈색소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崔²³⁾는 철분제의 복용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철분제 복용과 비복용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한방산후조리가 산모의 혈색소 호전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산욕기동안 산모의 혈액학적 변화, 특히 혈색소치의 회복도에 관해서라든지 산후 빈혈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의 혈색소치의 호전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정도인지를 비교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기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임신부의 빈혈에 관하여 분만과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거나 임신중의 혈색소 변동, 임신시 예방적 철분제제의 복용에 대한 연구, 임신과 분만 전후의 혈색소 변동에 관한 연구 등 주로 빈혈이 임신기간 동안과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 대부분으로 산전관리에는 다양한 관심과 예방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산모에게 있어서 철결핍성 빈혈의 치료효과나, 분만전후의 혈액학적 변화 및 산욕기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여 산후관리방면에 관해서는 교과서수준의 이해에 그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姜 등²⁴⁾의 보고에 따르면, 출산전 여성의 한방산후조리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여성이 산후조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산후조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84.8%에 달하였고, 특히 한약에 대한 선호도는 64.9%로 높은 편이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성은 갈수록 자신의 건강유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의료서비스나 산후관리에 관한 연구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의학은 산후조리에 관하여 역대 醫家들로부터 정리되어진 證·治·方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모성의 건강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결론

2001년 4월 부터 8월까지 전주 우석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산후조리클리닉에 입원한 정상분만한 68명의 산모에 대하여 입원시와 입원 2주후(13일째)의 혈색소 수치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2세부터 38세였고, 평균연령은 30.1세였는데, 철분제를 복용한 군 30명의 평균연령은 30.1±4.44세, 비복용군 38명의 평균연령은 30.0±3.36세로 두 군에서 근사한 연령분포를 보였다.

2. 산모의 입원시 혈색소치와 입원 2주후 혈색소치를 비교한 결과, 평균은 각각 10.40±0.94mg%와 11.95±1.10mg%로 1.54±0.90mg%의 상승을 보였으며 이는 유의성있는 호전이었다(P<0.001).

3. 경구용 철분제를 복용한 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간에 혈색소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입원시 혈색소치의 평균은 복용군에서 10.24±0.89mg%, 비복용군에서 10.53±0.97mg%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입원 2주후 혈색소치의 평균은 복용군에서 11.65±1.08mg%, 비복용군에서 12.18±1.07mg%로 혈색소 변화에 있어서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분만방법별로 철분제 복용군과 비복용군 간의 혈색소치를 비교한 결과 자연분만한 44명의 산모 중 철분제 복용군과 비복용군간의 입원 2주후의 혈색소치는 각각 11.81±1.19mg%와 11.98±1.09mg%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제왕절개한 24명의 산모 중 복용군과 비복용군간의 입원 2주후 혈색소치는 각각 11.49±0.96mg%과 12.84±0.67mg%로 비복용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한방산후조리는 산모의 빈혈에 유의성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기간동안 경구용 철분제의 복용여부는 산모의 혈색소 변화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학. 서울:칼빈서적. 1991:132-3,450-2.
2. 김중열, 차동현, 김종석, 성연준, 이윤호. 경구용 철분제제 복용 산모군과 비복용 산모군에서의 혈색소 변화의 비교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1;44(1): 85-8.
3.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아울로스출판사. 1994:860-2.
4. 葉桂. 葉天士女科. 서울:대성문화사. 1992:299,305-7.
5. 傅山. 傅青主男女科. 서울:대성문화사. 1992:142-3.

6. 김철환, 최정일, 전옥희, 유태우, 허봉렬. 일개 도시지역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임신부의 철분제재 복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991;12(4):1-7.
7. 황도연. 辨證論治 方藥合編. 서울:남산당. 1991:455-7.
8. Berlin NI. Anemia of cancer. Ann. N.Y. Acad. postgrad. Med., 1978;64(4):85.
9. 이삼열. 적혈구화 백혈구의 정상치에 관하여. 대한의학회지. 1976;19(2):123.
10. 이귀녕. 임상병리과일. 서울:의학문화사. 1993:738-9.
11. Kiwanuka GN, Isharaza WK, Mahmood S.: Iron status of pregnant women at first antenatal booking in Mbarara University Teaching Hospital. Tropical Doctor. 1999;29(4):228-30.
12.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약물학분과회. 약물학. 서울:문성사. 1992:361-5.
13. 김길영. 철결핍성 빈혈의 임상과 치료: 김영호 .임상약학. 서울:월간임상약학사. 1991:84-5.
14. 陳夢雷, 蔣延錫. 醫部全錄. 서울 : 대성문화사. 1992:263.
15. 백경미, 정진홍. 부인과 질환의 일반적 원인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전:혜화의학. 2000;9(1):124- 38.
16. 陳千植. 生化湯 및 補虛湯이 진통 및 적출 자궁근에 미치는 실험적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997: 127-31.
17. 宋炳基. 한방부인과학. 서울:행림출판. 1986:29-33,556-7,568.
18. 李旻. 醫學入門. 서울:고려의학. 1989:539-40.
19. 朱丹溪. 丹溪心法附餘. 서울:대성문화사. 1982:749-63.
20. 차봉오, 양수열, 이형병, 송병기. 補虛湯의 효능에 관한 연구. 서울:경희의학. 1998;8(1):22-35.
21. 김정희, 김성훈, 김병탁, 김한성. 生化湯 및 加味生化湯이 Endotoxin으로 유발된 백서의 혈전증에 미치는 영향. 한의학회지. 1993;14(2):229-44.
22. 김상우, 김승보, 송병기. 加味生化湯을 복용한 제왕절개시술 산모의 임상적 연구. 서울:경희의학. 1998;14(2):191-203.
23. 최신웅. 한방산후조리가 혈액 및 체성분변화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2-25.
24. 강구형, 백승희. 출산전 여성의 한방산후조리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조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0; 13(1):376-96.